



# “코로나19, 모르는 게 더 많다... ‘자가 예방’이 최선”

글 김길원 연합뉴스 의학담당 전문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중국을 강타하고 전 세계로 확산 중이다. 한국도 누적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신종코로나의 증상, 잠복기, 감염력, 예후, 치료 등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이 감염병에 대해 전문가들조차 아는 게 많지 않다. 아니, 이제 겨우 알아가는 중이라고 하는 게 더 많다. 사스와 80%가량 유전체가 비슷하다고 해서 사스-2(SARS-CoV-2)라는 별칭이 붙었지만, 그 20%의 차이가 미지의 영역인 셈이다.

국내외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정보로만 보면,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은 감기, 독감과 아주 비슷하다. 열, 마른기침, 짧은 호흡, 근육통, 피로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고 간혹 가래, 두통, 객혈,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만큼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바이러스 잠복기 상태에서 감염 여부를 알아챌 수 있는 증상 발현이 없는 ‘불현성 감염’인 셈이다.

중국에서 잠복기가 최장 24일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로 여겨진다. 국내에서도 잠복기가 17일로 추정되는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역시 초기 증상이 미미해서 진단이 늦어졌거나 불현성 감염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콧물이나 인후염 등이 덜 나타나는 데서 감기 증상과는 조금 구별된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런 증상으로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코로나19는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또한 공

식화된 치료지침도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의료진들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Kaletra)와 말라리아 약제인 클로로퀸(Chloroquine) 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이 처방된다.

칼레트라와 클로로퀸의 경우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 태국 등 해외에서도 효과가 확인된 약물이다. 코로나19도 HIV처럼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함께 언급된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신종 코로나 관련 임상효과는 확인됐지만, 아직 치료 방식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약물이다. 바이러스의 핵단백질 합성을 방해한다고 추정될 뿐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치료제의 효과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체내 면역 반응의 회복으로 코로나19가 치유됐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이 역시 아직은 추정 수준이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유행한다고 해서 막연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치사율이 신종 인플루엔자보다 높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보다는 크게 낮은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해도, 스스로 평소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소 손 오래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장갑·마스크 착용하기. 청소·소독 철저히 하기, 환기 자주 하기, 얼굴 만지지 않기 등의 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또한 다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가급적이면 가지 않고, 공중화장실에서는 환기가 잘 되는지 등을 살피고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

